



새남터 순교 성지 성당  
- 서울 용산 -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m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 독서] ..... 아모스 6,1ㄱ-4-7

[화답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 1ㄴ)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들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제2 독서] ..... 1 티모 6,11ㄱ-16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 환호송] ..... 2 코린 8,9 참조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6, 19-31

## [성가안내]

- 입당성가 [459] 너희는 가진 것 팔아
-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283] 순교자 찬가

## 미 사 봉 헌

영미사	봉헌
이 정진 안토니오 박 현진 스테파노 김 영호 요셉 조 태연 안토니오 조 태연 안토니오 김 수진 안 희순 마리아, 이 윤기	선 명희 노아 김 성중 다두 가족 고 은경 모니카 장 해라 마리 스텔라 임 국빈 토마스 아퀴나스 김 승애 클라라 김 영희 클라라
생미사	봉헌
이 영애 레지나 편 윤아 루시아 가정 여 경진, 김 흥기 안드레아 김 진열 가롤로 신부 박 티모테아 수녀 박 티모테아 수녀 이 경자 올리안나 김 선희 스킨라스티카	한 동훈 김 영희 클라라 김 승연 안나 김 영희 클라라 박 알버트, 박 아네스 김 영희 클라라 김 영희 클라라 김 영희 클라라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9월25일	조소연 마르티나	김진섭 야고보	정유진 콘솔시아	정유진 콘솔시아	민덕미 안젤라	한서희 데레사	양지수 글라라
10월2일	이지훈 아네스	박기목 알버트	이경자 올리안나	이경자 올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최예준 요한	양지수 글라라

## ● 박 티모테아 수녀 이동 됩니다.

-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움추린 상황이던 2020년 12월에 우리 맨하탄 한인 공동체에 오셔서, 봉사하시던 수녀님께서 귀국하십니다. 그동안 본당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느님 축복 속에 행복한 수도여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 ● 9월 사목 협의회는 없습니다.

## ●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합니다.

'노래로 하는 하느님 찬양은 두배의 기도'라는 어거스틴 성인의 말씀대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문 의: 노 데레사 917-692-6447

## ● 예비자 교리반 수강 신청 받습니다.

- 대 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분들
- 문 의 : 2층 사무실
- 세례예정 : 2023년 예수 부활 대축일

## ● 2023년 견진 성사 신청 받습니다.

- 견진대상 : 2019년 이전에 세례받은 신자

## ● 제26차 2022 미동북부 성령대회

- 일 시 : 2022년 10월 1일 (토) 오전 9시 ~ 오후 7시
- 장 소 : 메이플우드 성당
- 참가비 : \$20(점심식사 포함)
- 신 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

## ● '십자가의 길' 10월 2일 (일)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장 소 : 뉴저지 'World apostolate of Fatime  
674 MountainView Rd E. Asbury, NJ 08802
- 대 상 : 비 울뜨레아 회원들도 환영 합니다.
- 신 청 : 울뜨레아 단톡방에 9월 25일까지
- 출 발 : 주일 미사 후 성당 앞

## ● 미 동북부 혼성 제2차 꾸르실료 교육 있습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 3일 (목) ~ 11월 6일 (일)
- 장 소 : 뉴저지 St. Paul John II Retreat Center
- 대 상 : 영세 받은지 2년이상 경과된 신자로 본당 신부님 추천 필요
- 신 청 : 본당 울뜨레아 간사에게 문의
- 접 수 : 2022년 10월 25일 (화)까지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순교자 성월 기도]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게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우리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우리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2층 컨퍼런스룸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4:30pm	아랫성당

[2022년 9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사형제도 폐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팀)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LIQUOR WEST**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 황사영 백서 사건

황 사영은 정약용의 말형 정 약현의 사위로 주문모 신부를 남달리 사사하고, 그에게 세례 받았던 열렬한 신도였다. 경남 창원이 고향인데, 1801년 신유박해가 터지자 난을 피해서 충북 제천에 있는 배론으로 피신하여 지냈다. 그때 그는 그를 찾아온 벗 황 심과 비밀리에 모의해서 조선교회를 이교난의 위기에서 구할 일대 계략을 꾸미게 되었다. 그는 하루 빨리 북경 주교에게 국내의 참혹한 박해 상황을 보고하고 이어 몇 가지 중요한 대책을 건의키로하고 그 내용을 길이 2센티, 폭 38센티의 흰 비단에 아주 가는 글씨로 1만 3천여 자를 써서 청국에 밀송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황해도 앞바다에서 배가 뜨기 전 포졸에게 발각되어 황 심을 비롯한 여러 명의 신도가 서울로 압송되고, 황 사영은 그해 9월 피신처에서 잡히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조정에서는 천주교 박해의 정당성을 갖게 되었으며 백성들도 천주교를 대역모반의 매국종교로 불신임하게 되었다.

### ■ 백서 내용

1. 당신의 정치적 기상도와 가톨릭교 탄압의 과정, 현황을 자세히 보고했으며, 순교자들의 사력을 설명했다.
2. 박해의 원인으로 당쟁의 분석과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조선의 경제적 궁핍상을 내보이고 이를 구제할 경제 원조를 요청했다.
3. 청국인 교우 중에 영리 하고 근실한 자 하나를 택해서 국경지대에 접포를 개설케하여 장차 청과 조선 사신의 통신 연락 기관으로 삼도록 요청했다.
4. 청국 황제를 움직여 그 명령으로 조선이 천주교를 용납하도록 압력을 가하되, 청의 왕녀를 조선의 공주로 삼아 조선 국왕과 결혼케해서 국왕을 청의 뜻에 순종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5. 유럽의 천주교 국가들을 움직여 선박 수백 척에 정병 5,6만명 그리고 대포 등 군물들을 가득 싣고 조선을 쳐 선교의 승인을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6. 조선은 망하여 없어져도 거룩한 가르침의 표는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 해서 한 백성 된 자로써 감히 하기 어려운 말까지 구사했다.

이 백서는 의금부에 보관되었다가 갑오년 (1894년)에 당시의 서울 교구 주교였던 민 뮤텔 (G.C.Mutel)에 입수되어 지금은 로마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민 주교도 이 필서의 불역본을 내면서 그 서문에 음모의 대부분이 공상적이며 위험천만한 것이었다고 시인하고, 그로 인해서 제기된 박해도 이해할 수 있다고 평했을 정도이다. 이 결과 황 사영은 1801년 7월 27세의 나이로 대역모반죄로 몰려 능지처사의 참형을 당했고, 그 가산은 몰수되고, 모친은 거제도에, 처는 제주도에 그리고 한 살짜리 아들은 추자도에 각각 유배의 형을 받았고, 그 해 순교의 피를 흘린 교인의 수는 300명을 넘었다. 이후 정순왕후가 토사교문을 발표했다.

청국인 주문모 신부에 대한 처형 경위를 작성해서 청의 인종에게 바쳤고, 국내에서 다시는 사교의 피해가 없도록 경고했다. 엄격한 쇄국정책을 쓰게 했으며 북경 왕래를 제외한 모든 외교관계는 삼엄한 통제 아래 단절되었다. 북경 왕래의 사은사 일행까지도 조심해서 일행의 수가 200명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체제기간도 40일 이내로 제한 했다.

## 천주공경가

天主恭敬歌

천주공경가는 기해년 (1799년) 12월, 천진암 주어사에서 광암 이 벽 세례자 요한이 지은 노래이다.

어와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셔.  
집안에는 어른있고 나라에는 임금있네.

네몸에는 영혼있고 하늘에는 천주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네.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공경 으뜸일세.  
이내몸은 죽어져도 영혼남아 무궁하리.

인륜도덕 천주공경 영혼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천주있다 알고서도 불사공경 하지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점점 쌓인다네.

죄짓고서 두려운자 천주없다 시비마소.  
아비없는 자식됐나 양지없는 음지있나.

임금용안 못보었다 나라백성 아니런가.  
천당지옥 가보았나 세상사람 시비마소.

있는천당 모른선비 천당없다 어이아노.  
시비마소 천주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무궁 영광일세.